



인슈어테크(InsurTech) 평가와 전망

권오경 연구원

인슈어테크 기업의 등장은 보험사업모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진입장벽이 높은 보험산업의 특성상 인슈어테크 기업은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개별 보험회사의 준비정도에 따라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슈어테크(InsurTech)의 출현으로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¹⁾
 - 특히 자동차보험이 신기술 발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기타 보험사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급격히 증가함.
 -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보험 리스크의 속성도 종전과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기존 보험회사들의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전 세계의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25억 달러로 추정²⁾되며, 그 가운데 중국의 인슈어테크 투자규모가 10억 달러³⁾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인슈어테크가 신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핀테크 은행부문 투자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임.

1) S&P Global Rating(2016. 11), "InsurTech: Buzzword, Emerging Challenge, Or Long-Term Opportunity?"

2) KPMG data; S&P Global Rating(2016. 11) 재인용.

3) 이 중 중안보험(ZhonAn)의 투자규모가 9.31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함; S&P Global Rating(2016. 11).

■ 또한 대형 IT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막대한 양의 고객정보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글(Google),⁴⁾ 페이스북(Facebook),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등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임.
 - 현재 인슈어테크는 비용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더라이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존 보험회사와 비교하면 대다수 인슈어테크 기업은 규모가 작고 사업영역도 한정되어있어, 보험 시장 내 인슈어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임.
 - 현황을 살펴보면, 레모네이드(Lemonade), 중안(ZhongAn), 오스카(Oscar), 메트로마일(Metromile), 프렌드슈런스 알렉토(Friendsurance Alecto) 등과 같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반면 기존 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서비스와 판매채널 개선, 그리고 비용 관리를 지속하고 있어 인슈어테크 기업의 시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업 자체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기업은 기존 보험회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상품의 높은 계약 전환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⁵⁾
 - 그리고 보험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도 인슈어테크 기업의 보험산업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함.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감독당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인슈어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회사를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⁶⁾
- 또한, 대부분 고객이 중개방식의 판매채널을 선호하고 있어 인슈어테크가 현재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장기적으로는 직판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으로 인슈어테크가 보험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따라서 향후 인슈어테크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kiri](#)

4) 구글(Google)은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2016년 사업을 철수함.

5) 특히 생명보험 상품은 장기상품 특성 및 해약환급금 발생으로 전환비용이 매우 높음.

6)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개발을 공식 발표함.